지난 1일 동화사에서 열린 제9교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조실 진제스님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5대 결사 실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지난 3월30일 마곡사에서 열린 제6교구 민족전통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한 불자들이 5대 결사 동참과 민족문화 수호를 다짐하는 모습.

자성과 쇄신을 위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국민앞에 참회 서원으로 한국불교 종단자존 성취"

제9교구 동화사 본·말사

"대구경북 불자 앞장서면 불교중흥 반드시 이뤄져"

"대구·경북 사부대중은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결성을 기점으로 종단 5대 결사를 통한 자성과 쇄신으로 부끄러움 없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제9교구와 대구경북 사부대중이 한 목소리로 민족문화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불교계 안팎에 천명했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지난 1일 경내 통일약사대불전에서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기본선원장 지환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편향된 종교관과 중첩된 법적규제로 종교를 통제하고, 편향된 역사문화인식으로 민족종교가 핍박당하는 현실을 과감히 타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구경북 불자들이 자성과 쇄신결사 실천에 앞장선다면 민족문화 수호와 불교중흥이라는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정부여당의 사찰출입을 막거나 예산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고 쇄신하고자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없고 국민들의 신뢰도 이끌어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동화사는 지난해 8월 대구 일부 기독교계의 악의적인 불교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 임휴사 주지 현장스님, 동화사 총무국장 능도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본 · 말사 스님 20여 명이 참여한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결성하고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동화사를 비롯해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등 대구 · 경북 지역 12개 종단 사찰과 신행단체, 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어느 교구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여왔다.

청도 불령사 주지 보경스님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 앞에 참회와 서원으로 자성과 쇄신을 통해 한국불교와 종단의 자존을 성취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를 선언하는 법고시연을 시작으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종단활동 경과보고와 동영상 상영, 대회사, 격려사, 대중연설,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동화사=허정철 기자

"150만 충청불자 결집하여 민족문화 수호 앞장서자"

제6교구 마곡사·대전충남사암

반문화적인 정당과 후보 낙선운동 등 실천 '선언'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유산은 민족의 과거이며 오늘이며 미래입니다. 충청골 150만 불자가 결집하여 민족전통문화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말사 및 대전 충남사암연합회는 지난 3월30일 마곡사 대광보전 앞마당에서 민족전통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결의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중앙종회의원 원경스님, 견진스님,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우석스님, 대전비구니청림회장 성련스님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조금씩 변하다 보면 10~20년 후에는 한국불교가 엄청나게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5대 결사를 입으로 외우지 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실천해서 한국불교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자승스님은 결의대회의 취지에 대해 즉석에서 신도들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동학사 보현회 일심행 회장과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여성불자회 이종경 회장이 대회 취지를 설명해서 주지스님과 신도 10명씩을 총무원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은 대회사에서 "장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은 반문화적인, 반생명적인 정책의 입안과 집행으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혜스님은 "백제의 미소로 이름난 서산마애삼존불과 부여 정림사지 등의 성보를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시켰고, 대전충남의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충청골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성스러운 점안식과 개원법회를 봉행한 능사 역시 비상식적인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결의대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민족전통문화수호를 위한 대전 충남 사부대중의 실천선언을 통해 △반문화적인 정당과 후보들의 낙선운동 △문화유산이 올바르게 보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소외된 이웃을 위해 희망의 동전 1080만개 모으기 △매월 네 차례 이상 예불과 수행프로그램 동참 등의 10선행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마곡사는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금과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기 위해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시영 충남지사장 lsy@ibulgyo.com

"독도영유권 주장 불쾌하지만 일본 대지진 피해는 도와야"

불교계 단체 반응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이어 지난 1일 올해 외교정책 기조를 밝힌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청서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한 관계 현안의 하나로서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소유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에 끈기 있게 대화를 거듭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불교계는 대부분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는 일과는 별계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원택스님은 "사상 최대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면서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러한 때 독도를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 정부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정치행위는 불쾌하다"고 말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스님은 "이웃국가로서 지진피해로 고통을 입은 일본을 외면해선 안 되겠지만 일본은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졌으면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면서 다른 나라 영토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것은 유수국가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만초스님도 "일본을 지원하려 했던 마음을 상쇄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면서만 "이번 독도 문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앞으로 한두 달 뒤에 책으로 정식발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공한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 이어 오는 7월이나 9월 중 방위백서를 발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다영 기자

불자들 위한 '기자학교' 열렸다

조계사-불교신문 '불교로 세상보기' 호응

사찰에서 불교관련 취재와 사진촬영을 배울 수 있는 '불교기자학교'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스님)와 불교신문(사장 수불스님)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교기자학교 첫 강좌가 지난 3월31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열렸다. 조계사 미디어팀에서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불교기자학교는 불교기본교육 이상을 수료한 조계사 신도와 취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계사 행정국장 성진스님이 '불교시각으로 세상보기'를 주제로 진행한 첫 강의에는 불자 20여 명이 동참했다. 성진스님은 이 자리에서 "현대사회에서 신문, 방송을 무시하고 살 수 없음에도 불교는 이웃종교에 비해 미디어 영역만큼은 후발주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조계사는 미디어 포교를 강화하기 위해 불교기자학교를 마련했고, 앞으로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강의를 시작으로 '기사쓰기 이론 및 실제 1-스트레이트 기사' (4월7일), '기사쓰기 이론 및 실제 2-신문기자의 이해' (4월14일), '기사쓰기 이론 및 실제 3-인터뷰 기사' (4월21일), '광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5월12일), '시사 잡지의 세계' (5월12일), '인터넷 매체에 대한 소개 페이스북 및 트위터 기사 작성 및 송고' (5월19일), '동영상 촬영' (5월26일), '기획취재 방식 및 실제, 방송강의' (6월2일), '1박2일 야외강좌-불교기사 작성 실습, 사진촬영 실습' (6월11~12일), 과제 발표 및 수료식(6월16일) 등 총 12회에 걸쳐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매주 목요일 7시에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불교신문을 비롯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시사IN, KBS, YTN 등 신문,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기자들이 대거 강사로 나서 교육의 질을 높였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법보종찰 해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고품격 복지관

해인사소리원 海印寺蘇利院

행복한 노년을 해인 성지에서 보내세요! 스님들과 불자분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해인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해인사소리원은 고품격 콘도미니엄형 복지관으로써 개인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주방, 욕실, 발코니 등), 의료시설, 체력단련실, 식당, 다목적 휴게실 등 다양한 문화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마주하기 쉬운 무관심과 외로움…해인사 소리원에서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독립공간을 갖춘 고품격 콘도미니엄형 시설
가야산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환경
잔디공원, 연못, 산책로, 체력단련실 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구성

法寶宗刹 海印寺

전 화 : 055-934-3019
팩 스 : 055-934-3018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344번지

공고

제37차 원로회의

제37차 원로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불기2555(2011)년 **4**월 **15**일(금) **오후 2시**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안 건 : -.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
-.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의 건
-. 기타사항
▮문의처 : 원로회의 사무처 (02-2011-1865)

불기2555(2011)년 4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 산